

SMART CITY SearchLigh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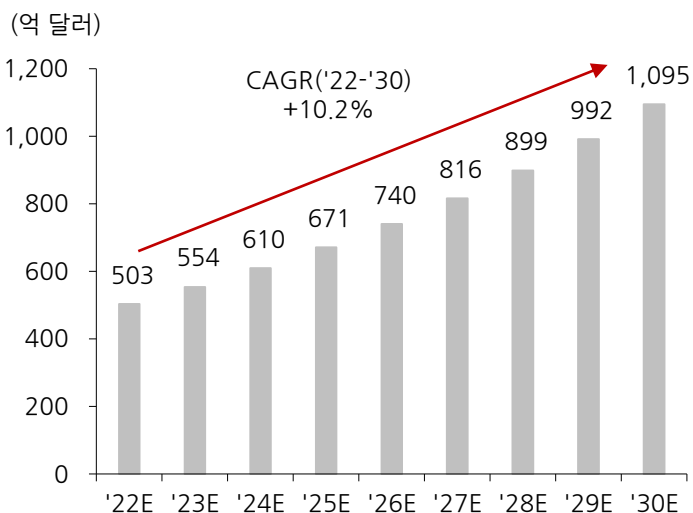
스마트시티추진실, 정규진 / 3773-9995
 R.A. 위수연/ 3773-8882
 R.A. 유예하/ 3773-8592
 R.A. 최민경/ 3773-8594



日 오토바이 업체들, 탄소 중립 흐름에 동참한다

관련 뉴스 요약 “혼다, 2030년까지 전기 바이크 비중 15%까지 늘릴 것”

글로벌 전기 바이크 (electric motorcycle) 시장 전망



자료 : Statista, SK증권

- 日 자동차 제조사 혼다는 바이크 판매량 중 전기 바이크 비중 확대 계획 발표('21년 0.4% → '30년 15%, '40년까지 100% 달성). 이를 위해 '25년까지 10종 이상의 전기 바이크 출시 예정
- 바이크는 배터리 수납 공간이 작아 전동화가 어려웠으나 향후 전고체 전지 도입 예정. 전기차 (EV)와 같이 외부 충전 통해 사용 가능할 전망
- 야마하도 '50년까지 생산 바이크 90% 전동화 계획 발표, 日 바이크 업계 탈탄소 경쟁 본격화. 전고체 전지 적용되며 전기 바이크 시장도 성장 전망

#탈탄소 #전기바이크 #혼다

Briefing

“노트북 포기 하더라도...구글, 프리미엄 태블릿 대공세” (출처: 디지털투데이)

- 비용 절감 조치 일환으로 픽셀북 노트북 프로젝트 취소했으나 태블릿 등 독자적 하드웨어 개발 행보는 지속
- “개인정보위, 구글·메타에 1000억원 과징금… 사상 최대” (출처: 조선비즈)
- 사전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한 구글·메타에 각 692억원, 308억원 과징, 역대 최대 규모